

6강 농경과 목축

1.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핵심 포인트

[학습내용 및 핵심포인트]

1. 기후환경과 생업
2. 농경사회
3. 유목사회

[학습목표]

1. 농경사회와 목축사회가 성립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의 생활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3.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한나라 사신과 중항열의 대화(『사기』 「흉노열전」)

한나라 사신 :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천막에서 살며 아버지가 죽으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 자기 아내로 삼소. 옷·관·허리띠로 꾸미지 않고 조정에서도 예의라곤 없소.

중항열 : 흉노의 풍습에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그 가축으로 옷을 만들어 입소.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철마다 옮겨 다니오. 그래서 그들은 싸울 때를 위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평상시에는 일 없는 것을 즐기고 있소. 그들의 약속은 간편하여 실행하기 쉽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간단하고 쉬어 한 나라의 정치가 미치 한 몸인 듯하오.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여 자기 아래로 삼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그래서 흉노는 어지러워져도 한 핏줄의 종족을 세울 수 있을 것이오. 지금 중국에서는 드러내놓고 자기 아버지와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일은 없지만, 친족관계가 더욱 멀어져서 서로 죽이기도 하오. 혁명이 일어나 천자의 성이 바뀌는 것은 모두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오.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의만을 지키다 보면, 위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만 하게 되오. 궁실과 가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꾸미면, 생산할 힘을 다 낭비하게 되오. 대체로 한나라는 밭을 갈고 누에를 쳐서 먹거리와 입을 것을 구하고 성곽을 쌓아서 자신을 방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시에는 싸워서 공을 이루는데 서투르며 평상시에는 생업에 지쳐있고. 슬프구나!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사는 한나라 사람들이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오. 옷자락을 살랑살랑 움직이고 다니지만, 옷과 관이 있다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3. 본 학습 내용

1. 기후환경과 생업

1) 농경지대와 목축지대

동아시아 사회는 채집, 어로, 수렵, 농경, 목축 등 다양한 생산방식이 존재. 가장 큰 이유는 강수량이나 기온, 지형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

연강수량 400mm 이상 - 농경이 가능. 강수량과 기온에 따라서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으로 나뉨.

연강수량이 600mm 이상인 지역 : 중국국의 진령산맥과 회수 이남, 한반도의 중남부, 일본의 혼슈 대부분 지역, 베트남 전역 → 논농사가 가능, 베트남 남부의 경우는 2기작 이상이 가능. → 바다에 면한 지역에서는 어로도 활발하였으며, 어획한 물고기를 오래 보존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젓갈이나 간장 등이 발달.

연강수량 400~600mm인 지역 : 회수 이북, 한반도 북부 → 기장, 조, 수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대표적인 밭농사지역 바다나 하천에서 먼 지역에서는 주로 가축을 길러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 → 동해안의 북부나 연해주, 시베리아의 툰드라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어로나 수렵을 주된 생산 활동으로 삼음.

연강수량 400mm 미만인 지역 : 동으로는 대흥안령산맥으로부터 서쪽으로는 러시아의 초원지대, 남쪽으로는 내몽골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 → 원래 수렵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면서 목축을 행함. → 소·말·양·염소·낙타를 주로 사육.

목축의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방목을 하는 경우와 여름 숙영지와 겨울 숙영지를 왕래하는 이목(移牧)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유목지대에서도 보조적으로 수렵이 행해졌는데, 매를 이용하거나 활을 써서 새·토끼·여우·사슴 등을 잡기도 함.

이처럼 동아시아사회는 북쪽으로부터 목축지대, 밭농사지대, 논농사지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목축지대에서도 제한적인 농경을 영위하였고, 농경지대에서도 닭·개·돼지와 같은 가축을 사육하는가 하면, 채집·수렵·어로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조적인 생산활동으로 존속함.

2) 양 사회의 교류와 갈등

각 지대 내부의 동일한 생산방식은 공통성과 통합의 원천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두 지대 사이의 생업의 차이와 사회의 이질성이 동아시아 전체의 사회변동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농경지대 :

- ① 목축지대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부양
- ② 생산물의 잉여가 발생
- ③ 정착생활을 하기 때문에 식량의 보관이 용이
- ④ 잉여생산물을 바탕으로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출현 → 점차 왕, 관료, 사제 및 전사로 분화
- ⑤ 일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가 성립

목축시대 :

- ① 이동생활을 하였으므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적인 전통이 강함.
- ② 주로 부족연합 형태의 국가를 형성
- ③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음
- ④ 평상시에는 유목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비상시에는 바로 전사가 전환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활을 잘 다루었으므로, 농경사회에 큰 위협이 됨 → 특히 기후가 고르지 않아 목초가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되면 유목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큰 무리를 이루어 남쪽으로 내려와 농경지대를 약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평소에는 농경지대의 곡물·황금·비단·무명·누룩과 유목지대의 말을 교역하여 서로가 필요한 것을 보완.

농경사회 중심의 역사기록

- ① 농경사회는 인구가 집중되고 영속적으로 문화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문명은 대부분 농경에 뿌리를 둔 것.
- ② 목축사회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할 경우에는 사회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이 극히 드뭄.
- ③ 생업의 차이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한 결과이며, 문화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④ 농경민들은 자신들을 약탈하거나 침략하는 목축민을 가난하고 야만적이며 호전적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목축민들도 농경을 천시하여 포로나 노예들에게 농경에 종사하도록 함.
- ⑤ 형사취수제나 노인을 천대하는 풍속은 농경민들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유목민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여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전사로 활동해야 비로소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

2. 농경 사회

1) 벼와 잡곡의 재배

벼농사의 시작과 장점

- ① 벼농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양자강 중·하류지역으로 기원전 6000년 경에 벼농사가 시작 → 하모도유적·양도유적·굴가령유적과 같은 초기 벼농사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유적이 있음.
- ② 이 지역은 후에 오·월이라고 불렸으며,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지역과는 구별.
- ③ 양자강 중·하류지역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소택지나 늪이 많아서 야생 벼들이 자생 → 이들을 포기 나누기 방식으로 습지에 심으면서 벼농사가 시작.
- ④ 벼의 품종이 다양하여 익는 시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삭만을 따는 반월형 석도로 수확. → 반월형 석도는 벼농사의 전파와 더불어 한반도, 일본열도, 타이완 등지까지 확산.
- ⑤ 동아시아 사회의 대표적인 곡물은 쌀 → 쌀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동아시아 인구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천이 됨.

⑥ 논은 지력의 소모가 적어서 연작이 가능하고, 물을 채워둠으로써 잡초가 자라기 어려우며 수자원의 보호나 보온 능력도 탁월함. → 논은 원래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늪지나 하천의 배후습지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농경.

밭농사와 잡곡의 재배

① 조·수수와 같은 잡곡을 재배하는 밭농사는 황하 유역에서 기원전 8000년 경에 시작. ② 초기에는 농경이 미숙한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채집이나 수렵·어로를 비롯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등 복합적인 생산방식을 영위.

③ 기원전 5000년 경부터 3000년 경에 걸쳐서 간 돌도끼와 채색한 토기를 특색으로 하는 본격적인 농경문화인 앙소문화(채도문화)가 황하 중류를 중심으로 발전.

④ 이어서 황하 중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용산문화(흑도·회도문화)가 출현하였는데, 조와 수수를 재배하고 돼지를 주로 사육, 옥과 구리를 이용하여 기물을 제작. → 일부지역에서는 거주지 바깥에 성벽을 쌓은 도시가 출현.

2) 농경사회의 모습

벼농사의 전파

① 중국의 회수 이남 지역, 한반도 중·남부, 일본열도의 구주와 본주에서는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경이 일반적.

②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관개수로 및 논을 조성해야 하고, 여러 가지 농기구가 필요하며, 파종에서 수확까지 재배과정이 복잡.

③ 벼농사는 그 기술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됨.

④ 한반도 중부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 경까지 소급되는 벼씨가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열도에서는 기원전 1000년 경의 벼씨가 출토.

⑤ 그러나 본격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00년 경, 일본열도에서는 기원전 300년 경

⑥ 벼농사는 양자강 하류지역에서 산둥반도를 거쳐 한반도의 서남부지역에 일단 전파 → 규슈의 북부지역으로 전래.

⑦ 한반도의 벼농사는 무문토기, 일본열도의 벼농사는 야요이토기로 대표

밭농사의 전개

① 황하 주변의 건조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밭농사는 조·수수·기장·콩과 같이 생육기간이 짧고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잡곡을 중심으로 함.

② 토양의 유실, 지력의 감소, 염해의 발생, 가축의 지나친 방목 등으로 논농사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생산양식

③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갈아엎거나, 소를 이용하는 우경, 혹은 가축의 분뇨나 인분을 거름으로 써서 지력을 높이는 시비법 등이 도입.

④ 이처럼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쟁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 넓은 농경지를 일구거나 종래에

는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도 경작.

- ⑤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개·배수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인근지역을 침략하여 갈등을 초래.
- ⑥ 집단으로 가축을 기르면서 생기는 질병 등을 치료하는 기술도 발달
- ⑦ 사람들이 가축과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축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 → 천연두·홍역·인플루엔자·폐결핵은 원래 가축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

주변지역의 상황

- ① 고구려의 경우도 좋은 땅이 없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지 못한다고 할 정도→ 목축·수렵에도 종사하는가 하면, 옥저나 동예처럼 바다에 접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조나 어류를 바치도록 함.
- ② 부여 역시 송화강 유역의 평원을 중심으로 잡곡을 재배하는 한편, 소·말·돼지·개와 같은 가축을 기름.
- ③ 일본열도의 경우도 혼슈의 대부분 지역에서 농경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어로와 채집 등도 폭넓게 이루어짐.
- ④ 농경사회 중에서 해안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반농반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
- ⑤평상시에는 농경을 하다가 시기에 따라서 제염이나 어로에 종사. → 특히 지예망이라고 하여 육지에서 그물을 당기는 어업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음.

3. 유목사회

1) 가축의 사육

- ① 목축은 초원지대를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생산방 → 비가 적고 기온이 낮아서 곡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는, 양이나 말과 같은 초식동물을 가축화하여 풀을 먹고 자라게 하여 고기와 젖, 유제품 등을 마련.
- ② 유목민들은 목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넓은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았고 또한 늘 이동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민처럼 한 곳에 생활의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드뭄.
- ③ 유목의 기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목민족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이는 흉노.
- ④ 진·한대에 흉노는 몽고고원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아시아 최초의 유목국가를 세움. → 흉노의 경우도 농경을 행한 흔적이 확인.

2) 목축사회의 모습

목축민의 생활

- ① 유목민들은 소·양·말·돼지·염소·낙타 등을 주로 길렀으며, 활이나 매로 짐승을 사냥하기도 함.
- ② 가축에서 얻는 고기와 젖, 치즈·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식량으로 하고, 가죽이나 털로 옷·모자·신발·담요·노끈을 만들며 주거지인 천막을 만듦.
- ③ 가축의 배설물은 작물을 기르는 비료로 쓰기도 하고 불을 피우는 땔감으로도 사용. → 가축의 뼈와

빨은 야금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각종 물건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

④ 낙타와 소는 물건을 운반하는 데도 긴요하게 이용되었으며, 말은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전투수단으로도 중요시됨.

⑤ 말을 이용하는 기마 전투집단의 전투력은 동아시아사회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 그 위력을 떨침.

⑥ 유목민들이 전투적인 기마민족이 된 것은 스키타이인들이 만든 무기와 마구로 대표되는 기마문화를 받아들인 이후. →안장과 등자가 발명되면서 말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게 되면서 유목민족들의 전투력을 더욱 맹위를 떨쳤으며, 그러한 우위는 화포가 발명될 때까지 유지.

축

⑦ 목축과 유목도 가축의 종류나 사육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있음. → 한 곳에서 머물면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 겨울 숙영지와 여름 숙영지를 왕복하는 경우. 방목을 하는 경우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므로 농경을 병행.

⑧ 목축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교배, 거세, 품종 선택 등을 통하여 사육 목적에 보다 적합한 가축으로 만들고 또 무리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었음.

유목민족

① 동아시아 사회 최초의 유목민족은 흉노

② 4~5세기에 중원지역으로 진출한 오호라고 불렸던 종족이 오호십육국시대를 전개.

③ 수당대에 활동한 돌궐과 위구르족 등이 중원왕조와 대립.

④ 13세기에는 몽골족이 대제국을 형성하였음.

⑤ 이들은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생산한 가죽·모피나 가축을 주변의 농경민족들의 곡물이나 비단, 차, 금속과 교역

⑥ 교역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후변동 등으로 가축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약탈하거나 집단을 이루어 침략. → 경우에 따라서는 중원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건국함.

4. 퀴즈

1. 다음 중 농경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혈연을 중심으로 한 결속이 강하여 지역적인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다.
- ② 잉여생산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출현하였다.
- ③ 마을이나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성벽이 발달하였다.
- ④ 생산력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다.

2. 다음 중 벼농사를 주로 영위한 지역이 아닌 곳?

- ① 중국의 회수 이남 지역
- ② 내몽골 지역
- ③ 일본 혼슈 대부분 지역
- ④ 한반도 남부지역

3. 목축지대의 생활상이 아닌 것은?

- ① 가축의 배설물을 말려서 땀감으로 사용하였다.
- ② 가축의 고기나 유제품을 주된 식량으로 이용하였다.
- ③ 천막을 치고 한 지역에 머물면서 가축을 길렀다.
- ④ 가축의 가죽이나 뼈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였다.

5. 학습정리

-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연강수량 400mm 미만인 지역에서는 목축, 400~600mm 사이 지역에서는 밭농사, 600mm 이상 되는 곳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영위됨.
- 농경지대에서는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직업이 분화되고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국가가 성립됨.
- 목축지대에서는 혈연적인 유대가 강하였고, 씨족·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발달함.
- 농경·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도 환경에 따라 수렵·채집·어로 등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영위됨.
- 목축지대에서 기후변동으로 가축 사육이 어려워지면 집단을 이루어 남쪽의 농경지대를 공격·약탈하거나 정복왕조를 세우기도 함.
- 평상시에는 농경지대의 곡물·비단·무명·금 등과 목축지대의 가축이나 모피 등의 교역이 이루어졌음.